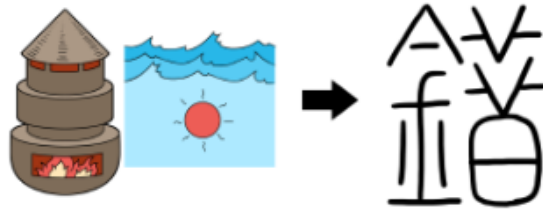


3(2)
-
401

형성문자①



錯

어긋날
착

錯자는 '어긋나다'나 '섞이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이다. 錯자는 金(쇠 금)자와 錯(옛 석)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錯자는 '옛날'이라는 뜻을 가지고는 있지만, 여기에서는 '석→착'으로의 발음역할만을 하고 있다. 錯자는 본래 금속이나 도자기 겉면에 무늬를 새기고 금이나 은, 자개 등의 재료를 끼워 장식한다는 것을 뜻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다. 이것을 '상감'이라고 한다. 이렇게 재료를 끼워 장식하는 방식은 제작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어려웠다. 그래서 錯자는 본래 '상감'이라는 뜻으로 만들어졌지만, 후에 '어긋나다'나 '어지럽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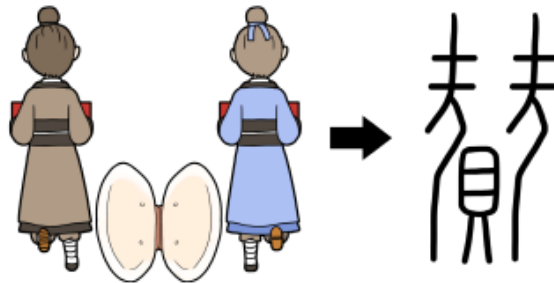
소전

錯

해서

3(2)
-
402

회의문자①



贊

도울 찬:

贊자는 '돕다'나 '빚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贊자는 𡗗(나아갈 신)자와 貝(조개 패)자로 결합한 모습이다. 𡗗자는 발을 내밀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람을 그린 것이다. 贊자의 금문을 보면 𡗗자 사이로 貝자가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재물을 들고 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그러니 贊자에서 말하는 '돕다'라는 것도 사실은 '선물'을 주고 도움을 받는다는 의미인 것이다. 贊자에 '빚다'나 '전달하다'라는 뜻도 있는 것을 보면 높으신 분에게 선물을 가져가는 모습으로도 보인다. 게다가 贊자에는 '천거하다'나 '추천하다'라는 뜻도 있으니 선물을 주는 의도가 엿보이기까지 한다.

贊

금문

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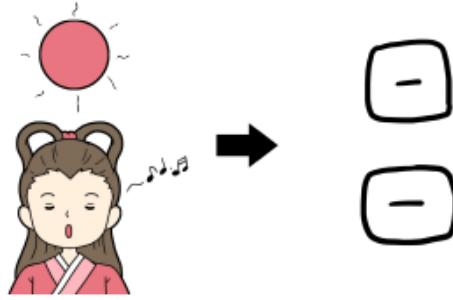
소전

贊

해서

3(2)
-
403

회의문자①



昌

창성할
창(·)

昌자는 '번성하다', '창성하다', '아름답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昌자는 日(해 일)자와 日(말씀 알)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昌자는 태양 아래에서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농업을 중시했던 고대 중국에서 태양은 '풍성함'과 '가득함'을 상징했다. 그러한 아름다움을 노래했던 글자가 바로 昌자였다. 그러나 후에 昌자는 태양의 창성함에 빗대어 '창성하다', '번성하다'라는 뜻으로 가차(假借)되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口(입 구)자를 더한 唱(노래 창)자가 '노래하다'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昌

갑골문

昌

금문

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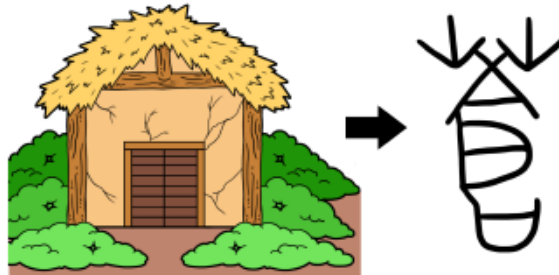
소전

昌

해서

3(2)
-
404

상형문자①



蒼

푸를 창

蒼자는 '푸르다'나 '우거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蒼자는 𦵏(풀 초)자와 倉(곳집 창)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倉자는 곡식을 저장하던 '창고'를 그린 것으로 '곳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곳집'이라는 뜻을 가진 倉자에 𦵏자를 더한 蒼자는 풀숲에 둘러싸여 있는 창고를 표현한 것이다. 풀숲에 풀이 우거지면 창고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후에 '어슴푸레하다'라는 뜻도 파생되었다.

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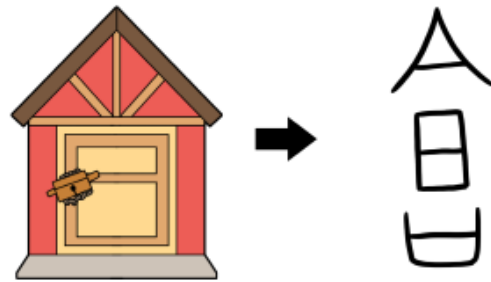
소전

蒼

해서

3(2)
-
405

상형문자①



倉

곳집
창(·)

倉자는 '곳간'이나 '창고'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倉자는 人(사람 인)자와 戶(지게 호)자, 口(입 구)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倉자는 人자가 부수로 지정되어 있지만, 사람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 갑골문에 나온 倉자를 보면 지붕과 외닫이 문, 그리고 주춧돌이 함께 倉 그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倉자는 본래 쌀이나 곡식을 보관하던 작은 창고를 그린 것이다. 그래서 倉자에 쓰인 人자는 지붕을 뜻하고 그 아래로는 외닫이 문(戶)과 주춧돌(口)이 표현됐다.

倉

갑골문

倉

금문

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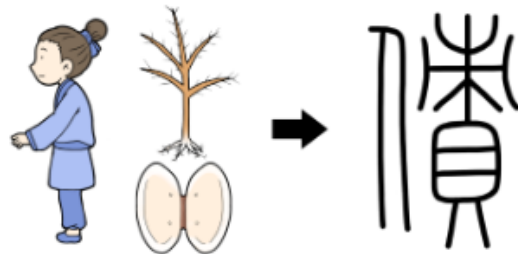
소전

倉

해서

3(2)
-
406

회의문자①



債

빚 채:

債자는 '빚'이나 '부채'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債자는 人(사람 인)자와 責(꾸짖을 책)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責자는 가시가 돋친 돈을 그린 것으로 이전에는 '빚'이라는 뜻으로 쓰였었다. 남에게 빚을 지게 되면 항시 독촉을 받게 된다. 그래서 責자는 후에 '꾸짖다'나 '나무라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責자가 이렇게 '꾸짖다'라는 뜻으로 바뀌면서 지금은 여기에 人자를 더한 債자가 '빚'이라는 뜻을 대신하고 있다.

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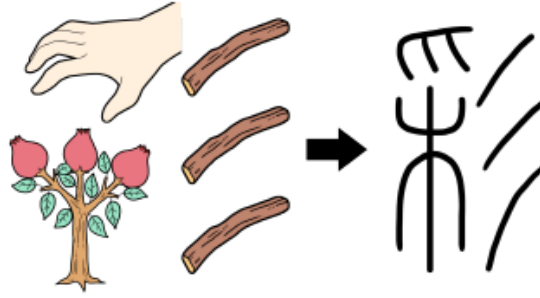
소전

債

해서

3(2)
-
407

회의문자①



彩

채색 채:

彩자는 '무늬'나 '채색', '윤기'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彩자는 采(캘 채)자와 彡(터럭 삼)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采자는 나무에서 열매를 따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캐다'라는 뜻이 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여기에 쓰인 彡자는 뜻과는 관계없이 '햇살'로 표현되었다는 점이다. 즉 彩자는 햇살이 화사하게 비추는 곳에서 열매를 따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햇살이 밝은 날에는 열매의 색깔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彩자는 열매의 색이 잘 보인다는 의미에서 '고운 빛깔'이나 '윤기'라는 뜻을 가지게 되었다.

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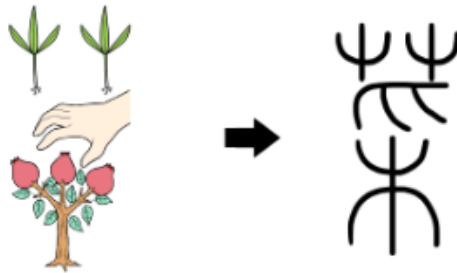
소전

彩

해서

3(2)
-
408

회의문자①



菜

나물 채:

菜자는 '나물'이나 '반찬'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菜자는 艹(풀 초)자와 采(캘 채)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采자는 손으로 열매를 따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렇게 열매를 채집하는 모습을 그린 采자에 艹자가 더해진 菜자는 '나물을 캐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졌다. 菜자는 '나물'을 뜻하지만 때로는 나물로 만든 반찬이나 술안주를 뜻하기도 한다.

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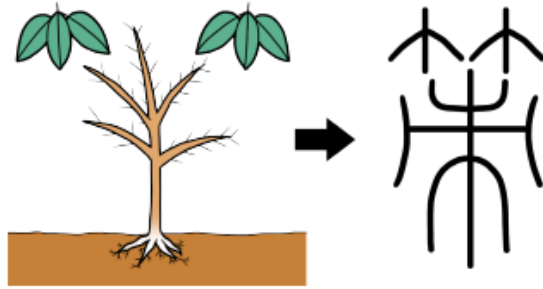
소전

菜

해서

3(2)
-
409

회의문자①



策

꾀 책

策자는 '채찍'이나 '계책'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이다. 策자는 竹(대나무 죽)자와 束(가시 자)자가 결합한 모습이다. 束자는 가시가 있는 나무를 그린 것으로 '가시'라는 뜻이 있다. 策자는 가시를 뜻하는 束자에 竹자를 결합한 것으로 '대나무로 만든 채찍'을 뜻했었다. 策자는 후에 말을 달려 승리하기 위해서는 계책이 필요하다는 의미가 확대되어 '꾀하다'나 '기획하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策

소전

策

해서

3(2)
-
410

회의문자①



妻

아내 처

妻자는 '아내'를 뜻하는 글자이다. 妻자는 회의문자이지만 갑골문을 봐야 이해가 쉽다. 妻자의 갑골문을 보면 女(여자 여)자 위로 휘날리는 머리칼과 又(또 우)자가 그려져 있었다. 이것은 여자의 머리칼을 만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여자의 머리칼을 만지는 것과 '아내'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중국이 부권사회로 전환된 이후 여성의 정조가 강조되면서 외간남자에게 신체를 접촉하게 하는 것은 극도로 금기시되었다. 여자의 머리를 만진다는 것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다. 妻자는 그러한 인식이 반영된 글자로 '머리칼을 만져도 되는 여자' 즉 '아내'를 뜻하고 있다.

妻

갑골문

妻

금문

妻

소전

妻

해서